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13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고품질 감귤 위한 자동관수 기술 개발 -p94(2026.05.01.)	미래농업육성과	농경과 원예
○	에어냉각조끼로 올 여름은 시원하게 -p94(2026.05.01.)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경과 원예
○	제주, 스마트 씨감자 생산체계 전환 시동 -p64(2026.05.01.)	농산물원종장	월간원예
○	제주, 치유농업으로 도민 마음건강 돌본다 -p90(2026.05.01.)	기술지원조정과	월간원예
○	AI 기반 디지털트랩 해충 예찰 실시간 체계 전환-p119(2026.05.01.)	농업디지털센터	월간원예
○	참깨 수확 기계화 확대로 소득작목 육성 박차-p126(2026.05.01.)	동부농업기술센터	월간원예
○	농작업, 말하면 기록된다...AI 음성 영농 일지 개발 본격화-9면(2026.05.04.)	농업디지털센터	한국 영농신문
○	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미리 예측한다-9면(2026.05.04.)	농업디지털센터	한국 영농신문
○	‘AI 활용 농산물 마케팅’ 도, 13일부터 교육생 모집-6면	동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만감류 기술 교육-9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기고] 참깨 농사, 이제 ‘허리 펴고’ 콤바인으로 수확한다-14면(박남수)	동부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노랗게 익어가는 청보라-1면	-	제민일보

(농경과 원예: 2026년 5월 1일)

○ 고품질 감귤 위한 자동관수 기술 개발-p94

고품질 감귤 위한 자동관수 기술 개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이 노지 감귤원 고품질 생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자동관수 기술 개발에 나섰다.

노지감귤은 제주 전체 감귤 재배면적의 약 71%를 차지하는 핵심 작목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정밀 수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토양피복 재배는 수분스트레스를 활용해 당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물을 주는 시기와 양 조절이 품질을 좌우한다.

농업기술원은 토양수분, 관수량, 기상 정보와 당도·산 함량·과실 크기 등 품질 데이터를 연계한 자동관수 기술을 개발 중이다. 특히 토양수분장력을 활용해 토양 상태를 정량 분석하고, 과실 품질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최적 관수 기준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존 경험 중심 관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연구 핵심이다.

올해는 제주 5개 농가에 자동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방식과 비교 분석하는 현장 실증도 추진한다. 센서와 제어 장치를 활용해 토양수분과 관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관수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물 관리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고품질 감귤 생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기술이 제주 노지 스마트팜 확산과 데이터 기반 고품질 감귤 재배 전환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호 94

(농경과 원예: 2026년 5월 1일)

○ 에어냉각조끼로 올 여름은 시원하게-p94

에어냉각조끼로 올 여름은 시원하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가 레드향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총 6,340만원을 투입해 에어냉각조끼, 공기압축기,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을 6월까지 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 적용에 들어간다. 에어냉각조끼는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조끼 내부로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으로,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이 적용됐다. 실증 결과, 일반 작업복보다 신체 내부 온도는 평균 13.8%, 습도는 24.8% 낮춰 온열질환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사업은 폭염 심화와 농촌 고령화로 높아진 농작업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제주 지역 온열질환 발생률은 전국 상위권으로, 농업 현장의 예방 기술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장 적용 후 예방 효과와 사용 편의성, 작업 활동성 만족도를 조사해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중대재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레드향 재배 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사례로, 기후위기 대응형 농작업 안전기술 모델로 주목된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장 체감형 예방 기술 확산으로 폭염 속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현희 농촌지도사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함께 극한 폭염은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온열질환 없는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 **농경과원예** 5월호 94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간원예: 2026년 5월 1일)

○ 제주, 스마트 씨감자 생산체계 전환 시동-p64

제주, 스마트 씨감자 생산체계 전환 시동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을 자동 제어 기반 스마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씨감자 생육 관리 모델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경재배 씨감자는 일반 씨감자보다 생산성이 약 20% 높고 생육 안정성과 수량 확보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장점으로 매년 약 1,900여 농가가 신청할 만큼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기존 생산 방식은 양액 공급과 pH·EC 조절 등을 숙련 인력이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

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정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노동력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은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조성된 첨단 온실과 복합 자동제어 설비를 활용한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생육 관리 기준과 디지털 제어 모델을 정립해 스마트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생육 단계에 적합한 최적 환경을 유지하고, 기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구현한다.

개발 모델은 ▲생육 단계별 관리 기준 ▲양액·환경 관리 운영 기준 ▲자동제어 적용 기준으로 구성하며, 관리 체계의 표준화와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기온, 일사량, 습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양액 공급 시간과 휴지 시간을 자동 조절하는 디지털 제어를 적용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생육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사업은 지난 3월 모델 초안 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봄 작기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다. 오는 9~10월 가을 작기 월간원예 5월호 64을 거쳐 12월에 최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월간원예: 2026년 5월 1일)

○ 제주, 치유농업으로 도민 마음건강 돌본다-p90

제주, 치유농업으로 도민 마음건강 돌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과 관련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4개 사회서비스기관과 협력해 제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의 심리·정서 지수는 34.5%, 자아존중감은 8.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올해 참여 기관을 5개소로 확대하고, 오는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 체험을 넘어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가 참여해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서귀포 가족센터 ▲돌담정낭(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와 함께 치유농장 및 치유농업센터에서 총 24회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기관별 참여자 특성을 반영해 치유 텃밭 활동, 오감 체험, 나만의 숲 표현하기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 자아존중감 증진 등 대상별 치유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2개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효과 측정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향후 프로그램 신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월간원예 5월호 90**

(월간원예: 2026년 5월 1일)

○ AI 기반 디지털트랩 해충 예찰 실시간 체계 전환-p119

AI 기반 디지털트랩 해충 예찰 실시간 체계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인공지능(AI)으로 해충 발생을 실시간 감지하는 디지털트랩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농업 디지털 기반 영농지원 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로 복잡해지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육안 판독 방식에 의존한 사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측·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디지털트랩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트랩에 포획된 해충을 인공지능이 즉시 판독해 권역별 농업기술센터로 전달하며, 기존 육안 판독 대비 정보 전달 시간이 15일 이상 단축돼 현장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트랩은 제주 전역 노지 감귤원과 발작물 재배지 82개 지점에 총 195대가 설치·운영되며, 11월 말까지 해충 발생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대상 해충은 총채벌레류, 노린

재류, 나방류 등 주요 9종으로, AI 이미지 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분석이 이뤄진다. 수집된 데이터는 '제주DA 플랫폼'에 저장되며, 500m 간격의 정밀 기상정보와 결합해 해충 발생 위험도를 '보통·주의·경고·심각' 4단계로 제공한다. 농업인은 '제주DA' 앱을 통해 자신의 재배 환경에 맞는 방제 시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제 정보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농가의 약제 사용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약제 추천과 도내 구매 가능 정보도 함께 안내된다. 이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기존 사후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반 예찰과 정밀 기상정보를 결합해 농업인의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월간원예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월호 119

(월간원예: 2026년 5월 1일)

○ 참깨 수확 기계화 확대로 소득작목 육성 박차-p126

참깨 수확 기계화 확대로 소득작목 육성 박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인력난으로 위축된 참깨 재배의 경쟁력을 높이고, 월동채소 작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수확용 참깨 신 품종 보급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의 참깨는 수확 과정에서 인력 의존도가 높은 작목으로, 농촌 인력부족 등

의 영향으로 도내 재배면적이 2019년 629ha에서 2024년 231ha로 63.3% 감소했다. 기존 재배는 예취, 결속, 운반, 건조, 탈곡 등 전 과정이 수작업에 의존하며, 10a 기준 약 32.6시간의 노동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56농가, 40ha에서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기계수확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월동채소 휴한기를 활용한 이모작 작부체계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은 5월 상순 파종 후 꼬투리의 약 40~60%가 벌어진 때 건조제를 살포하고, 약 7일 후 수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8월에 현장평가를 통해 △노동력 절감 △월간원예량 △농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5월호 126

(한국영농신문: 2026년 5월 4일)

○ 농작업, 말하면 기록된다... AI 음성 영농일지 개발 본격화-9면

농작업, 말하면 기록된다... AI 음성 영농일지 개발 본격화

제주농기원, '제주DA' 앱 적용 예정
손으로 쓰던 영농일지 '퇴장' 예고

제주농업기술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디지털 플랫폼 '제주DA'의 영농일지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농업인의 기록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농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을 통해 비료·농약 사용 등 주요 농작업을 중심으로 시나리오형 디지털 영농일지를 구축해 기본적인 디지털 기록 체계를 정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인력 방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농업인

이 작업 내용을 말로 전달하면 자동으로 정리·기록되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제주지역의 언어 환경과 농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기록 기술이다.

제주어와 고령 농업인의 대화 방식 등을 학습한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해 작업 내용, 사용 자재, 작업 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텍스트 입력은 물론 사진, 위치 정보 등 다양한 기록 방식을 지원하고, 통신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우선 저장한 뒤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도입해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

축적된 영농일지 데이터는 '제주DA' 플랫폼 내 필자 단위의 기상·토양·생육·경역 정보와 연계도 활용된다.

농업인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영농 판단과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행정은 이를 활용해 정책 수립 등 농정 전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5월부터 기능 설계 및 개발에 착수해 10월 중 '제주DA' 앱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농업인 200명으로 구성된 '제주DA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농업기술원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AI 영농일지는 현장에서 편리하게 기록하고, 그 데이터가 실질적인 정보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주어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용적인 디지털 플랫폼 '제주DA' 앱이 필수 도구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5.4. 한국영농신문 9

(한국영농신문: 2026년 5월 4일)

○ 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미리 예측한다-9면

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미리 예측한다

종자수요 데이터와 농가 재배동향
결합... 생산량 예측 정밀화 기대

제주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월동채소의 수급 불안을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자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를 5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 수급조절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농가의 재배 계획과 종자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신청량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면, 도내 파종 가능 물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배 규모를 미리추산할 수 있다. 종자 수요량은 농가 재배로 이어지는 가장 초기 단계의 지표로, 향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최근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2024~2025년산 월동채소 가격 호조에 힘입어 2025~2026년산 재배면적이 늘었지만, 이후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올해 농가의 재배 의향이 반영된 종자 신청량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수급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제주 주요 월동채소 5개 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이다. 도내 재배농가 약 500호와 종자·유통업체 3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한다.

재배능가에 대해서는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 파종·정식 시기, 종자 구매 계획, 품종 선택 등 실제 재배 의향과 함께 기후변화 및 최근 재배 동향이 농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종자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26년산 종자 사전 신청량과 확보 물량, 최근 5년간 종자유통량 등을 조사한다. 종자신청량은 실 재배면적을 가능할 수 있는 핵심 선행 지표로 활용되며, 생산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6월 중 정책부서와 관계기관에 공유되며, 9~10월에는 실제 종자 유통량을 추가로 조사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농업기술원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농업도 이제는 지난해 가격이나 경험 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가격변동 사례에서 보듯 사전 예측과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자수요라는 농업현장의 선행지표를 분석해 농가가 생산을 사전에 조절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영농신문 9

(한라일보: 2026년 5월 13일)

○ ‘AI 활용 농산물 마케팅’ 도, 13일부터 교육생 모집-6면

‘AI 활용 농산물 마케팅’ 도, 13일부터 교육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AI로 완성하는 농산물 마케팅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6월 2일부터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관에서 매주 화요일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3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교육 과정의 80% 이상 이수 시 전체 교육시간이 인정되며, 30%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실제 이수 시간만큼 교육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632)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13.
한라일보 6

(제민일보: 2026년 5월 13일)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만감류 기술 교육-9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만감류 기술 교육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11일 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한라봉·천혜향 중점 핵심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인 안전 및 성인지 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진드기 감염병 예방 교육 △토양 비료의 이해 △5~6월 중점 재배기술 순으로 진행됐다.

5. 13.
제민일보 9

(삼다일보: 2026년 5월 13일)

○ [기고] 참깨 농사, 이제 ‘허리 펴고’ 콤바인으로 수확한다-14면

참깨 농사, 이제 ‘허리 펴고’ 콤바인으로 수확한다

최근 농촌 현장은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참깨 재배는 수확 과정에서 예취, 결속, 건조, 탈곡 등 대부분의 작업이 수작업에 의존해 노동 강도가 높은 대표적인 작목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농가들이 선택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워하며 제주 지역 참깨 재배면적은 2019년 629ha에서 2024년 231ha로 약 63% 감소했다.

이러한 재배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동부지역에서는 올해 ‘기계수확용 참깨(하니올) 현장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참깨 신품종 ‘하니올’은 기계 수확에 적합하도록 육성된 품종이다. 기존 참깨 재배는 10a 기준 수확 과정에서 약 32.6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했으나, 콤바인을 활용한 기계수확 방식 적용 시 작업시간을 약 0.5시간으로 단축



박남수
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할 수 있어 노동력 98%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하니올’은 꼬투리가 동시에 익고 쉽게 터지지 않는 특성을 지녀 기계 수확 과정에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촌 현장에서 참깨 재배의 기계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 혁신에서 시작된다.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계화 기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뜨거운 여름 피약별 아래 참깨를 베느라 굶었던 농민들이 허리가 활짝 펴지기를 기대해 본다. 삼다일보 14

(제민일보: 2026년 5월 13일)

○ 노랗게 익어가는 청보리-1면



노랗게 익어가는 청보리 소만(21일)을 열흘가량 앞둔 12일 제주시 애월읍 제주올레 16코스 길가에서 청보리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 소만은 햇볕이 풍부해지고 만물이 점차 자라 가득 찬다는 뜻으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절기다. 김봉철 기자